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스 6:1-12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어서 된다. 지난주 말씀은 원네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가? 그러면 분명 마 6:33응답이 올 것이다. 영적인것이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적 인생이 되어서는 근본적인 조건중의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삶은 따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이다. 자연히 사람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수준을 넘어서 초월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정복이고 초월이다. 이 초월이 보좌의 축복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야 우주를 정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며 살라고 이미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된다. 어쩌다 이런데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잘하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게 된다. 환경속에는 사단이 많이 역사한다. 그래서 환경도 이 일을 막는다. 이런 일이 세상에 없을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휘둘리면 안된다.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나 하나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세상을 살린다. 하나님도 이 일에는 양보가 없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과는 육신적으로는 놀아주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정신이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다. 그런 것을 무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신만은 놓칠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면 안된다. 일이 다 깨진다. 전도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못 깬다는 것이다. 바나바는 거기에 조금 못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써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바나바는 사라졌다. 나중에 우리가 싸우는 원인이 되었던 마가가 해결된 후에 마가를 다시 사도 바울이 불렀다. 그런데 바나바를 또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아마 내 생각에는 바나바가 그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절대 바나바를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열리고 정신이 안 맞는 것이다. 맹목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어떤 때에는 기가 막힌 응답이 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일을 해서 준비를 해 준다. 하나님 당신이 하기 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두고 생각과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는가? 지구가 필요하면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다. 누구든 이 일을 하면 이 권세를 평생 누리게 된다. 어쨌든 시작된 응답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놀라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된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게 된다. 각자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

경적 전도를 계속 보는 것이다. 이것이 작품이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중에 성전 건축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다.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살았다. 생활 터전이 거기 70년 살았으니 거기 있었던 것이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곳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돌아온 것이다. 이 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등이다. 3장부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스가랴 3장 12절에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것이다.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리운 것이 있었는가? 그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4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북 이스라엘이 망한 후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부 앗수르로 데려간 후 앗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놔다. 자연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여 피가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니 같이 성전 짓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은 거짓말이다. 율법책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기준이 없으니 자연적으로 종교적으로 했을 것이다. 아니면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긴다고 했을 것이다.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계 할 일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이 성전을 짓고 약속의 피를 고백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되지도 않은 것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는가? 우리가 악한 짓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는가?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성전을 지어가지 하고 감동 된사람들이 돌아온 것이다.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종교가 섞이는 일을 허용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 하면서 이 나라는 항상 왕에게 대들었다고 고발했다.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굴복하지는 않았다. 그런 역사를 이야기 하면서 또 이렇게 할텐데 되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총독이 있는데, 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 20년정도 늦어졌다. 이러던 중에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학개나 스가랴가 유다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일을 함께 도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거기 파견되어 있던 총독이 찾아온 것이다. 그때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다시 시작하냐고 하니,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설명한 것이다. 원래 고레스왕때 우리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해줬다면서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아서 확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고레스의 명령을 찾은 것이다. 그 문서가 있으니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을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다. 점령한 한 나라의 왕이 속국이 된 나라의 신을 인정할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유일하다. 점령한 나라는 반드시 자기 나라의 신을 세우고 거기 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나라의 예산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는 것이다. 6절에 보면 총독들은 성전 짓는데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고 못 박아서 말하였다. 8절에는 왕의 재산과 세금중에서 이들의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건축이 멈추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9절에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과 물품들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계속 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세계사에 없는 일이다. 10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러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다. 다리오는 자기 나라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다. 11절에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 변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조치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 뿐 아니다. 홍해가 열려버렸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군대들이 있어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애굽군대가 다 죽었다. 유대인들 얼마안되는 이들이 다 죽을줄 알았는데 18만 5천명이 죽은 것이다. 그 나라 왕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나중에 자기도 죽었다. 놀라운 일이다. 사실이다. 태양을 멈춰 버리는데. 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위하여 태양을 멈춘 것이다. 지구도 거꾸로 돌리셨다. 이런 일은 세계사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권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생을 드린 자가 누릴 권세이다. 역사 일어난다. 어느나라도 자기 나라의 신을 만들고 자기 신을 섬기게 했지, 점령한 나라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 자기 나라 예산을 주겠는가?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였다.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의 권세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답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그 근방에는 가지도 말아라. 세금 걷은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데로 계속 줘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진짜 기가막힌 응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는 이 시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목표가 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렇게 된다.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들어와서 언약이 되면 즉시 정복하게 된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소망이 되게 되어 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 죽고 싶을 정도로 못 말리게 된다.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오는데 직선거리로 1500KM정도 되고 아브라함이 온 길은 삼천몇백 킬로미터 정도 된다. 차도 없고, 걸어왔어야 한다. 그리고 오다가 죽을수도 있다. 짐승 만날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새로 지어서 이 제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 2. 원네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을 방해하면 목 매어 죽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된다고 대를 이어 저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요구하는데로 날마다 계속 줘야 한다.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내겠다고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통하면 우리도 이렇게 누리게 된다. 되어지는 응답, 성경과 같은 응답,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 사람과의 원네스가 아주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과의 하나됨이다. 그 메시지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으면 증인은 되겠지만 사람은 이끌어들 수는 없다. 나도 보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로 성경가지고 많이 이야기 했지만 지식이었다. 지식은 나쁜건 아니다. 지식이 아주 밝아야 한다. 그런데 힘이나 가능성같은 것은 다음 단계가 또 하나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 영적 역사를 새로 쓰도록 부름 받은 교회

이다. 이 영적 역사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것 뿐인데, 육신적 세계역사의 중심에 섰다. 사실은 그 어느누구도 사도바울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첫째가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 첫째가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의 인생이 첫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선교를 처음 시작하도록 선택 받은 사람이었다. 놀라운 은혜이다. 또 하나님의 선교를 현장에서 처음 그린 사람이다. 그의 선교는 역사에 기록되었다. 복음 운동을 통해 시대를 뒤집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때 일어난 기독교 문화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 문화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놀랍다. 최고로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전세계에 복음운동 하도록, 선교에 역사적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필요 없다. 복음이 전달되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사도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사실은 없었다. 나폴레옹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끝났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약속의 피, 뱀의 머리를 깨는 약속을 붙잡고 누리고 이 운동하는데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같은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문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복음운동도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을 받았다. 이 결과가 복음운동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 거거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동네 문화 바꾸는 것도 어렵다. 우리는 다 부모다. 아이들 생각 바꿀수 있나? 생각이나 삶이 문화이다. 안된다. 쉽게 말하면 말 안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대의 생각을 바꿨다. 이것이 우리 인생 중에서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말로 미국을 바꿀수 있을까? 진짜 남미를 바꿀수 있을까? 조건은 너무나 간단하다. 내가 약속의 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의 사람이 되면 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표본으로 잡고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 시대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성전을 다시 짓고 약속의 피를 고백하는 약속의 피제사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원하신다. 히스기야같은 이런 왕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엘리사 혼자서 아람 다 죽여버렸다. 혼자이다. 기도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가만히 있는 홍해가 왜 갈라지겠는가? 쫓아오던 애굽군대는 결국 자기들이 다 죽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기가 막힌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답은 이미 정해졌다. 새로운 답은 없다. 옛날의 그 답이 오늘도 답인 것이다. 그 답이 미래도 영원한 답이다. 그리고 한계도 없다. 하나님이 이 시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통하면 넘어서게 되어 있다. 사람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약속의 피가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다. 눈 떠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주간에도 넘치기를 바란다.